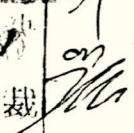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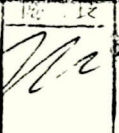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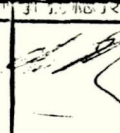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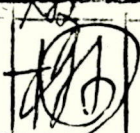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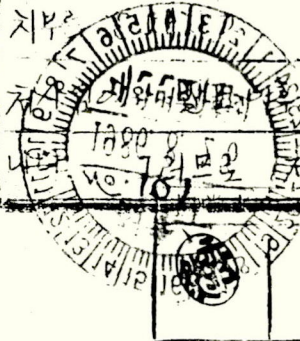


개정 신처 의뢰서

대한변협 회장님 귀하.

안녕하십니까? 이 글을 지하는 사람은 소위 '부천서성고문사'의 직접적 피해자이자 현사문기동을 기소했던 권인숙입니다. 그동안 절박하게 유린당한 한 여성의 인권을 되찾는 싸움에 안락의산과 조사위원회를 구성,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하신 것과 이후 검찰의 날조발표후에 대한변협회장님 이름으로 저의 진실에 대한 믿음의 확언과 한 남국발표의 부당함에 대한 통렬한 반장은 내셨던 사실은 신문등을 통해 의기 일고 너무 든든해 했었습니다. 이와같은 이번 싸움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와함께 이 글을 지하는 또 다른 목적을 적고자 합니다. 이제는 모든분들이 다 함께 인식하는 바이지만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싸움은 일개인의 고소나 기소한 호소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음은 너무도 분명한것 같습니다. 백의기에 들어난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처리해 버린 인권검찰의 처리가 이제 단순한 그들의 자취의사였다고 판단하겠습니까? 이것은 현저권이 자신들이 지지-권력을 가진 집단이라는 점을 악용, 엄청난 물리력과 형박공갈로 자신의 치부

이것이 대항하는 모든가 입과 키를 비오려는 재판과정을 통해 명백히 밝혀진 사실들임 제가 판단하기에 앞으로 제가 취하려는 제지신청



인권위

제반 법적 소송은 더 험난하고 힘든 채로는 걸지 않으면 안될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렇다고 예시받을수록 더욱더 있는 일하기에 모든 양심
 있는 이들이 힘을 합쳐 맞서 나아가야 할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지원 모든 법정소송부분에 대하여 대한변협이
주동이 되어 대한변협이 다수변호인의 힘을 합쳐 진실을
끝내 밝혀달라고 강력 부디바랍니다. 또한 저의 부탁을
 외면하지 않으실것도 믿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땅에도 진실을
발굴하고, 인권의 청백한 땅을 개척하는 참견이들이 끝없이
움직이고 끝내 이길수 있음을, 이 한사건이 밑안이 되어 모든이들
에게 참신함을 싹틔울수 있도록 힘써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서없이 쏘글 알려해 주시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986년 3월 25일.

신천소법교도소재자인 叔仁 叔

의 무고는 본인의 무고임을 증명함.

교도 이계

대한 변호사 협회 김 원 호 회장님 귀하.

WA20180035 (3/3)



사람

인천 소년 교도소
72 권 인숙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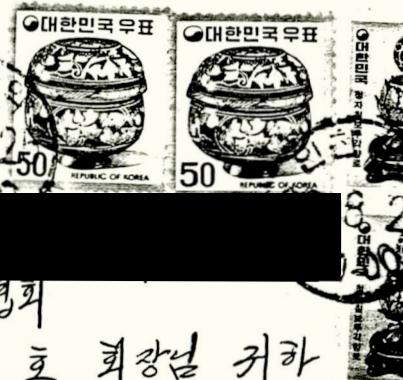
받는 사람

인천학익동 등 기
49

행정우편

속 달

대한 변호사 협회
김 원호 회장님 귀하



□ / □ / 0 - □ □

“내가 아낀 종이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